

長安山の 天然林 남벌과 敎訓

全北도에 가족휴가촌이자 長水郡立公園인 長安山 인접 天然林에서 최근 大韓石公이 갱목용으로 사용키 위해 천연림을 마구 베어내고 있어 큰 물의를 빚고 있다. 石公은 지난해 말부터 全北長水郡長水邑 長安山 국립공원 경계부근 속칭 사두봉기슭의 30~40년생 원시림 13.5ha를 벌채, 국립공원의 주변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고.

石公이 벌채하고 있는 長安山 용바위부근은 용소암과 마죽관바위등 천혜의 수려한 觀光資源이 밀집돼 관광객과 등산객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

이곳은 아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자연경관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곳이다. 石公측이 이 주변의 천연림을 베어내고 있는 것은 長水郡이 지난 86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면서 長安山 주변의 石公소유림야 1천6백47ha중 11ha를 공원지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는 없는듯. 石公의 벌채지역은 長安山국립공원 등산코스에서 보기 좋하게 민둥산으로 바로보여 천연원시림을 보려왔던 관광객들이 크게 실망.

군당국이 자연공원인 국립공원 지정시에 많은 石公소유림야를 포함시킨 과정에서 11ha를 제외시킨 고충도 이해할 만하고 다름아닌 坑木用 벌채이기에 산림당국 허가도 까다롭지 않은 탓이었지만 비록 자연공원 구역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인접 천연림의 경관을 위해서도 간벌(지역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을 할 것이지 남벌로 민둥산을 만들어야만 속이 후련한 것인지 벌채허가기관과 石公측 모두 앞으로는 自然林 경관보전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7.29 한국경제·全州發聯合]

鬱陵島の 오징어

오징어의 본명은 오적어(烏賊魚)로 자기 방어를 위해 입에서 검은 먹물을 뱉어대는 오적어가 오징어로 변용된 것이라고. 한디위의 中伏에서 늦가을까지 흑한외의 선달그믐까지 慶北동해안에서 풍성히 잡히는 오징어채낚기어업은 그 絶頂이 鬱陵島 연근해에서 어장이 형성되는 秋夕 이후가 된다. 울릉도오징어의 특징은 살오징어로 다른 것에 비해 두 배나 큰데다 살결이 두껍고 부드러운 진한 해초의 맛을 풍기는 것이 別味. 오징어는 문어와 같이 연체동물로 고급단백질이 함유된 다년생. 오징어는 고급어종으로 도시사람들의 첫번째 기호물로 선물로도 안성마춤. 越南사람들은 오징어를 가보처럼 간직하며 제사때 없어선 안될 귀중품이라 한다. 이는 오징어가 염분이 많아 장기보관이 가능하기때문이라고. 요즘은 여학생들까지 오징어를 좋아하고 양념구이 오징어는 서민의 애환을 달래는 향수품으로도 한몫을 차지했다. 울릉도오징어는 국내 유명어물점에서 살 수가 있는데 산지에서는 측당 20마리에 3만5천원정도. 울릉도오징어는 호박엿, 동백꽃과 더불어 이 섬의 명산물. [9.3. 경북일보 울릉發]

美 中部가뭇은 温室효과 때문

UNEP(나이로비에 本部를 둔 UN환경계획)전문가들은 현재 미국中部의 혹심한 한발은 「그린하우스 이펙트(온실효과)」라는 과학적 현상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UNEP소속 기상학자인 「웬테옹와」는 현재 미국중부의 이같은 상황은 大陸内部를 건조지대로 바꾸게되는 온실효과와 같은 것으로 이에 따라 美大平原의 밀곡창지대는 草原地帶로, 西部의 옥수수곡창지대는 半건조지대로 바뀌질 수 있다고. [7.11. 東亞日報·UPI]

TV

朴圭彩씨 M.TV에 복귀

정치연설후 11개월만에 명예회복 기쁘다

릴런트 朴圭彩씨(50·분회대의원)가 작년말 대통령선거전때 민주당찬조연설원으로 강도높은 TV유세를 편후 화면에서 자취를 감췄으나 올림픽이 끝나는대로 11개월만에 다시 방송활동을 재개키로 했다. 가족에 의하면 지난 8월에 M-TV서 미니시리즈 출연설이 돌다가 잠잠해져 1개월전에 영화 “傷處”(김수현作) 출연교섭을 승낙, 현재 촬영중이라고. 月南章(李商在 선생기념사업)

행사준비로 바쁘다는 朴씨는 「연기자가 연기를 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느냐」며 기쁨을 표시. 명예회복을 위해서도 지난해 11월까지 진행하던 아침醫學프로 「건강백세」의 MC를 맡고 싶다는 희망.

M.TV의 건전한 발전과 朴대의원의 명예회복에 박수를 보낸다. (J)